

코로나19 실업으로 장기매매 나선 가장



▲ 인도네시아 자바섬 클라텐 지역의 한 거리에 장기매매 피켓을 걸고 서 있는 오타비우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인도네시아의 한 40대 가장이 장기를 팔겠다고 나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3일 인도네시아 데릭뉴스에 따르면 자바섬 클라텐에 사는 프란스 래리 오타비우스(43)는 얼마 전까지 세차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얼마전 해고됐다. 그의 손에 쥐어진 건 퇴직금 30만 루피아(약 20달러)가 전

부였다. 그마저도 얼마안가 동이 났다.

그는 “젓먹이 아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자녀가 넷이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노릇을 했는데 일자리를 잃었다.” 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도 여의치 않았다. 자카르타에서 이사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자력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목에는 “신장 사실 분을 찾습니다. 신장 팝니다. 빛도 값도 아이들도 먹고 입고 교육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구걸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글이 빼곡히 적힌 피켓을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경찰과 행정기관 등이 오타비우스를 도울 방법을 찾을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와 세계 일자리’ 보고서에서 “코로나 록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분기 전 세계 노동시간이 10.5% 감소할 전망”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약 3억5000만 명의 정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과 맞먹는 노동시간이다.

코로나19 ‘수혜’ 입는 범죄자들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글렌도라 경찰서는 20대 남성이 불과 12시간 동안 세 번의 체포와 세 번의 석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렌도라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8분경 한 남성이 차량을 부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뒤 도주하려는 24세인 디종 랜드럼(사진)을 붙잡아 조사를 마친 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로-베일 정책’(Zero-Bail Policy)인 선 석방 후 소환장 발부 원칙에 따라 훗날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오후 2시 20분, 경찰은 또 한 통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수상한 남성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남성’ 이 몇 시간 전 체포됐다 풀려난 랜드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랜드럼은 이번에도 ‘제로-베일 정책’ 덕분에 현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이 세 번째 신고전화를 받은 것은 저녁 8시 50분. 경찰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범인을 추적해 체포한 뒤 그가 반나절 새 두 번의 체포와 석방을 거듭한 랜드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그를 ‘순순히’ 놓아줄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된 제로-베일 정책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용의자의 수감을 최대한 줄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주의 긴급명령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범죄 용의자들은 다시 대중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교도소에서도 확산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재소자 등을 임시 석방 또는 조기 석방했다. 4월 중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석방된 재소자는 1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로 나선 5세 어린이



슈퍼카를 사달라고 조르던 어린이가 손수 차를 사기 위해 달랑 3달러를 들고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다.

유타주 고속도로순찰대는 4일 정오 무렵, 시속 30마일 정도로 유난히 느리게 달리는 차량을 발견했다. 즉각 검문에 나선 순찰대는 운전자를 보고 기겁을 했다. 운전석에는 한눈에 봐도 어린이가 하나가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운전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였고 나이를 물으니 5살이라고 했다.”라며 “내가 차를 붙잡고 있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려고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라며 황당해했다.

순찰대에게 어린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은 표정으로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사러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슈퍼카를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다 어머니에게 혼이 난 어린이는 직접 람보르기니를 사기 위해 부모님 자동차 열쇠를 훔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소 2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카를 사고 싶었던 어린이의 주머니에는 달랑 3달러가 들어있었다.

또 고속도로까지 진입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운전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경찰은 이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했다. 부모는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는 동안 직장에 있었으며, 형에게 동생을 맡겨놓고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자동차 키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용자 신청 • PPP(금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